



차 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뉴스레터





보건의료산업학과 학과장
이신호

안녕하십니까?

차 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학과장 이신호입니다.

보건의료산업은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과 인구고령화 등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신성장동력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차 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는 보건의료산업 분야 국내 유일의 학과로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선도 할 창조적 융합형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보건의료산업 변화에 대응하며, 미래 보건의료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실무 전문가를 ‘보건의료산업정책관리’ 분야, ‘보건의료산업기술관리’ 분야, ‘글로벌헬스케어’ 분야 등 3개 영역에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1학기부터 ‘보건의료산업학과 뉴스레터’를 발행합니다. 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학생 기자단과 학과 모든 교수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여 이번 창간호를 구성하였고, 앞으로 매 학기 1회 발행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산업학과 뉴스레터는 학생과 교수가 인화단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임과 동시에 학부모와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 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산업학과 학과장 올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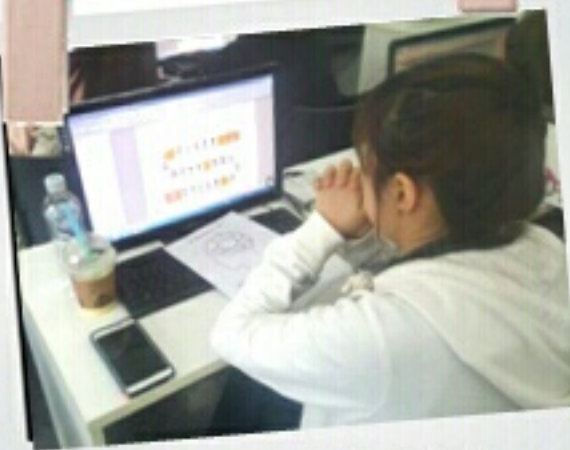
2017년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보건의료산업학과 17학번 학생들이 교수님들과 선배들로부터 학과와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교과목, 현장 실습, 동아리 활동 등 입학 후 펼쳐질 학과 생활에 대해 그룹 멘토링을 받았다.

슈퍼워크

슈퍼워크 행사는 차 의과학대학교 차원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특별 행사로 2017년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다. 보건의료산업학과는 보드게임, 협동심 기르기 게임, 멘토-멘티 프로그램, 요리 경연대회, 파파라치 게임, 진로 로드맵 작성, 학과 비전 발표 등 학생과 교수가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요리 경연대회



진로 로드맵 작성



선배 멘토-멘티 프로그램



총 워크숍

2017년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리조트에서 학생-교수 총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수업 시간에 나누기 어려운 정을 함께 나누고, 여러 가지 게임과 장기자랑을 통해 학과가 하나 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신입생 장기자랑



우리는 한 가족!



바이오 코리아 박람회

바이오 코리아

2017년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2017년 바이오 코리아(Bio Korea)에 참여하였다. 국내외 대표 보건 의료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인 바이오 코리아는 보건 의료산업 관련 중요 정보 교류의 장이다. 모든 재학생들이 교수님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야구 우승 트로피



종합우승 기념촬영



빅데이터 분석실습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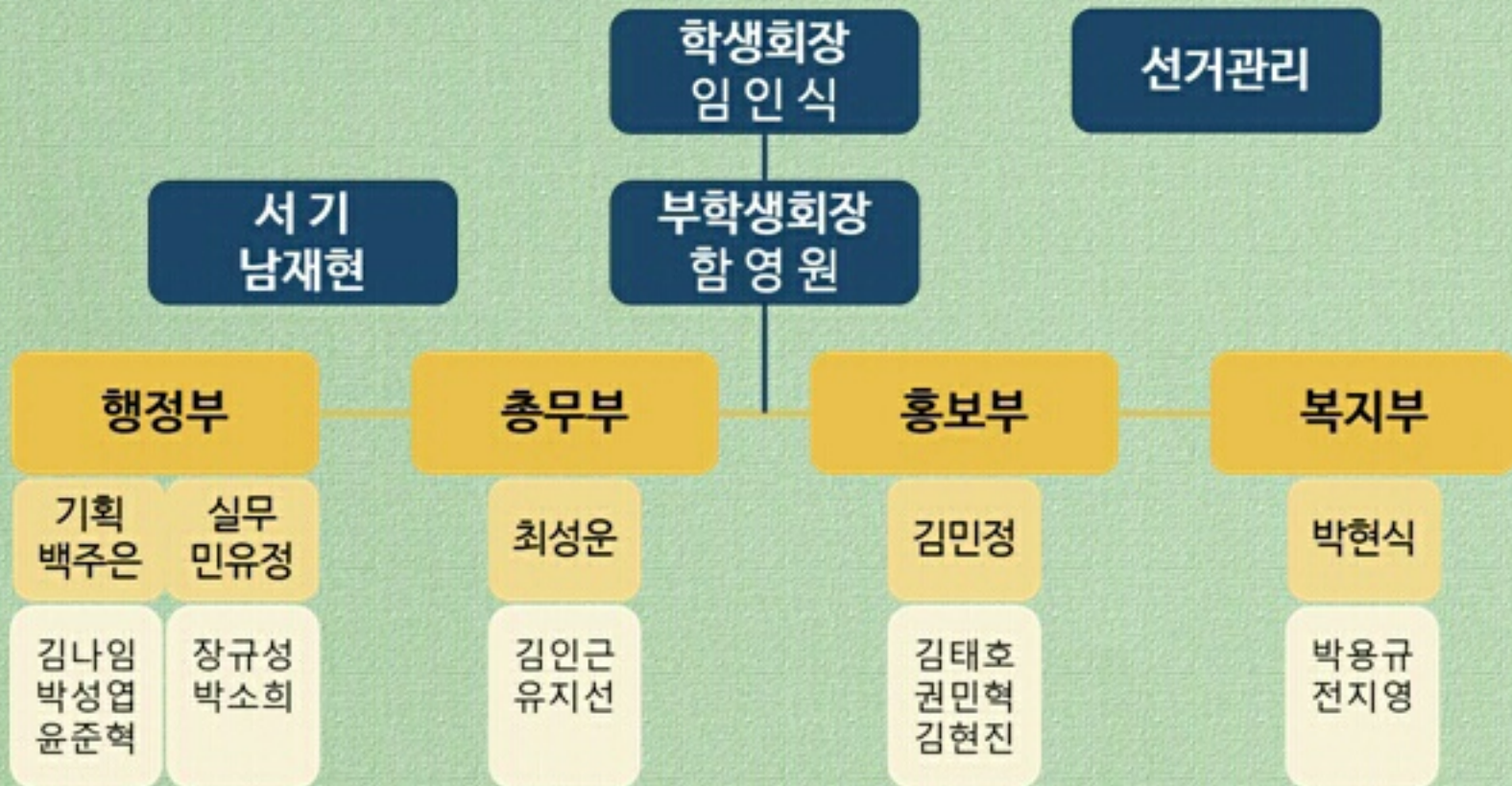
2017년 5월 17일에 차 의과학대학교 체육대회가 진행되었다. 보건의료산업학과는 구기 종목 경쟁 분야 중 야구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였고, 전체 학과 대항전에서 '3년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보건의료산업학과 특강

2017년 6월 7일에 학과 특강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목 받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이론 학습과 실습이 병행되었다. 이어서 2부 특강은 보건의료산업학과 인재상과 관련한 진로 로드맵 작성 및 활용에 관해 진행되었다.

2017년도 학생회

2017학년도 학생회 조직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헬스산업 촉진 정책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 바이오헬스산업 전체 시장 규모가 8조 5,490억 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7조 200억 달러를 차지한 보건의료 및 건강서비스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가별로 GDP 대비 미국은 16.6%, 스위스가 11.4%, 한국은 7.1%를 기록했다. 두 번째로 큰 시장은 의약품 시장으로 1조 1,38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의약품은 특히 화이자, 노바티스 등 주요 10대 기업이 관련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경우 세계 시장의 2%를 차지했다. 세 번째로 큰 시장은 의료기기 시장으로 3,905억 달러를 차지했고 주로 미국, 독일, 일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시장의 1.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바이오헬스산업 시장이 4차 산업혁명이 성숙할수록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7년 4월 17일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동 전략에서 산업부는 향후 바이오헬스산업이 첫째, 의료 지식이 데이터 기반으로 변화하고, 둘째,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며, 셋째, 병원 이외 기업으로 생태계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비즈 모델 개발, 둘째, 맞춤 신약개발 및 생태계 조성, 셋째, 융합 의료기기 개발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참고문헌]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4월 17일 보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전략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준비위원회는 ‘10년 후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4차 산업으로 인한 생산과 소비 변화를 첫째, 개인 맞춤형 생산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 둘째, 소비 트렌드의 급변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수명 주기 단축, 셋째, 환경 친화적인 생산과 소비 확산, 넷째, 제조와 서비스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다섯째, 스마트한 생산과 소비의 확산, 여섯째, 글로벌 협업 네트워크의 확대와 같이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생산과 소비의 다양화

생산과 소비의 영역간 융합



맞춤

개인 맞춤형
생산의 확대



신속

소비 교체의
사이클 단축



환경

생산·소비의
환경친화성 증대



융합

제조와
서비스의 결합



지능

생산과 소비의
스마트화



연결

프로세스의 글로벌
융합과 리쇼어링

[그림 2] 미래 생산과 소비 변화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2017: 86.

동 보고서는 이와 같은 변화가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 분야를 8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보건의료 부문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첫째, 유전자 정보와 정밀 의료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다. 둘째, 건강관리서비스가 진보하면서 암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암관리가 보편화될 것이다.

[참고문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2017) 10년 후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 고양시: 지식공감.

OECD 보건장관회의

2017년 1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OECD 보건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보건장관회의는 ‘The Next Generation of Health Reforms’을 주제로 증가하는 만성질환과 항생제 내성 및 기술 혁신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식 채택된 OECD 보건장관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향후 국내 보건의료산업도 관련 개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1> OECD 보건장관회의 선언문 요약

- ① 각국의 의료제도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새로운 미래 비전이 필요하다.
- ② 의료비 낭비 감소, 환자 안전 증진, 양질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의료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 ③ 유전체학 발전으로 맞춤 치료 가능성 증대,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 발전, 빅데이터 확산으로 개인 건강관리 증대 등 보건의료 혁신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그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④ 미래 보건의료는 보다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 ⑤ OECD 국가는 항생제 내성 등 주요 보건의료 이슈에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공동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건의료산업 관련 전망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폐지, 각종 세금 인하 등과 같이 자유주의에 기반 한 정책 기조는 보건의료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기준 시장 규모가 3조 6,802억 달러로 세계 시장의 약 41%(세계 1위)를 점유할 만큼 미국의 보건의료산업 규모가 커 개혁의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고자 하는 트럼프케어가 논란의 중심에 있고 그 외 세부 보건의료산업 분야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오바마케어의 가입 강제 조항과 고용주 가입 의무 조항 폐지와 더불어 보험사 간 경쟁 촉진 정책을 시행하고, 제약사의 약가 인하를 위해 신약 신속 승인과 같은 유인책을 제시하며, FDA 신약 허가 관련 규제 철폐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TRUMP



[참고문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234호(2017년 4월)

역사적으로 인류가 겪어온 산업혁명의 근본 동학에 대해 절대적인 합의점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1차 산업혁명은 석탄과 증기기관 중심,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표준화 중심, 3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으로 본다. 2016년 다보스 포럼 이후 급격히 인구에 회자되는 4차 산업혁명의 경우, 맹아는 싹텃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 방향, 결과와 유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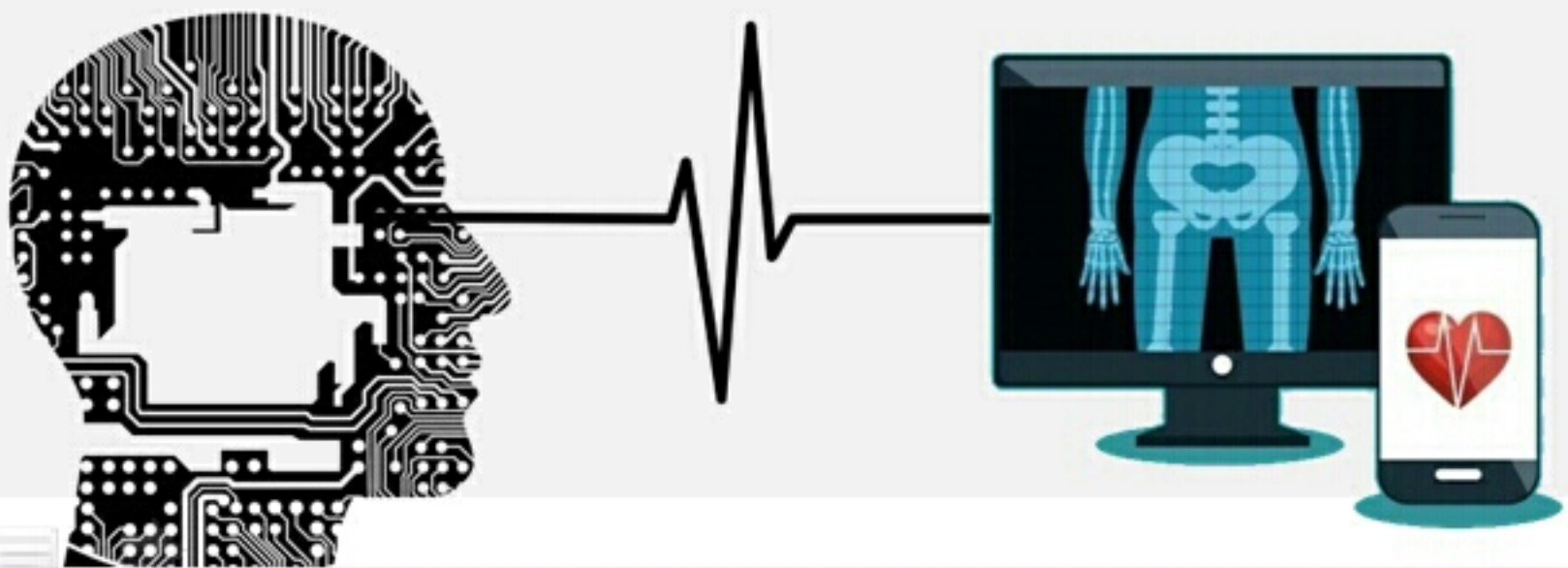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과 사물인터넷(IoT) 및 센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공장화를 내세운 독일의 Industry 4.0, 3D프린팅을 기반으로 한 OECD의 제조업 혁명 보다 범위가 넓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림 1] 산업혁명의 흐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보건의료산업 분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가 바로 스마트헬스케어산업(Smart Healthcare Industry, SHI)이다. SHI는 ICT를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관리함으로써 개인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성장 산업이다.

SHI 생태계는 주로 병원과 통신사, 헬스케어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업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고, SHI 서비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건의료서비스로 구성되는 추세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는 삼성 기어와 LG 라이프밴드, Jawbone UP24, Insulet OmniPod, Nike Fuelband 등 주로 개인 건강관리 기기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는 삼성 S-Health, Apple HealthKit, Google Fit 등 주로 개인 건강 정보 관리 솔루션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서비스는 Google Big Data System, IBM 왓슨 등 유전자 분석 기반 진단이나 일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SHI의 잠재력을 인식한 선진국들은 SHI 육성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 연합은 'Horizon 2020'을 통해 SHI 관련 소프트웨어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영국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원격의료와 SHI 관련 사업 촉진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및 세금 우대 혜택 정책과 함께 NHS에 SHI 관련 광범위한 시범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를 중심으로 SHI 발전 5대 전략을 발표하고 'The 21st Century Cures Act'를 기반으로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촉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보건의료 2035'에 기반하여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요연계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경쟁력 확보,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확산 기반 마련 등 3대 전략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엔진 프로젝트를, 보건복지부가 2016년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밀의료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 흐름에 조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SHI 관련 기업이 증가하고, 시장 잠재력도 성장하고 있으나 SHI의 실질적인 확대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SHI 저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아직 높은 제도적 장벽을 꼽을 수 있겠다. 다시 말해 SHI 촉진 정책은 의료 민영화 논란과 겹쳐 계획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강관리서비스법이 2010년-2013년까지 세 차례 발의되었으나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통과되지 못했고, 원격의료시범사업 기반 산업화 및 시장 확대도 실패하였으며,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계류중이다. 이는 곧 4차 산업혁명과 SHI의 상생은 관련 규제 정책 및 법·제도적 환경이 성숙했을 때 가능함을 시사한다.

주요 제약회사 인터뷰

보령제약

‘인류 건강에 공헌’ 및 ‘인본주의에 입각한 공존공영 실천’을 추구하는 기업

• 인재상 •
도전정신, 변화주도, 창의정신,
열정, 조화정신을 갖춘 인재

중외제약

치료제 중심으로 병원시장을 선도해 온 중외제약은 우수한 오리지널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적인 신약개발을 하고 있다.

• 인재상 •
성실한 자기개발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내는 인재

제약회사

한미약품

1973년 창립한 한미약품은 ‘고귀한 생명을 위하여 더 좋은 약을 만든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글로벌 신약 창출에 매진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R&D 중심 제약기업이다.

• 인재상 •
창조적이고 도전정신이
강한 인재

한림제약

국민건강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치료의약품의 연구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

• 인재상 •
목표의식, 성실성, 신뢰성, 책임
감, 팀워크를 골고루 갖춘 인재

Q: 기업 소개

A: 1963년에 서울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약 1,100명의 직원이 있고, 이 중 약 500명은 세일즈와 마케팅 분야에 종사합니다. 저희 기업은 '인류 건강에 공헌' 및 '인본주의에 입각한 공존공영 실천'을 사명으로 합니다. 국민들을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시켜드리기 위해 많은 연구와 고품질 제품의 생산, 정확한 배송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겔포스엠, 용각산, 구심 등의 제품이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믿을 수 있는 친숙한 회사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Q: 주력 상품

A: 저희 회사의 주력상품은 Kanarb입니다. Kanarb는 국내 최초 고혈압 신약입니다. 대부분의 고혈압 약은 다른 약과 섞어 복용하는데 Kanarb는 단일제입니다. 단일제로는 국내 매출 1위이고, 멕시코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Q: 보건의료산업학과 졸업생 취업 전망

A: 저희 회사와 보건의료산업은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R&D 관리뿐만 아니라 글로벌헬스케어 분야, 제품 수출 분야, 기술 이전 사업화와 제품허가 분야(임상시험)가 저희 기업과 밀접합니다. 졸업 후 저희 기업에 지원하면 이런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기업 소개

A: 저희 중외제약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 주로 치료제를 중심으로 신약 개발에 힘쓰는 제약 기업입니다.

Q: 보건의료산업학과 졸업생 취업 전망

A: 취업 관련해서는 RA나 보건의료기술이전 파트 쪽 채용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환자유치나 의료 해외 진출 같은 분야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중외제약 취업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A: 아무래도 화학이나 생물학을 기초로 공부 하는게 좋고, 외국어는 영어와 중국어를 잘 하시면 좋습니다. 일본어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Q: 기업 소개

A: 저희 한미약품은 한국의 대표적인 R&D 중심 제약 기업으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인재상

A: 열정이 있는 사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 남들보다 일찍 그리고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Q: 보건의료산업학과 졸업생 취업 전망

A: 학과 리플릿을 보니 보건의료산업학과 교육과정 대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부서마다 다르지만, 산업개발부서는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하고 활발한 성격으로 교류를 좋아해야 하겠죠. Regulatory 쪽은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해외사업진출 부서는 해외사업팀과 해외사업개발팀으로 나뉘는데 해외사업팀은 글로벌리즘을 지향하여 미국, 유럽, 중국 쪽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외국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Q: 기업 소개

A. 저희 한림 제약은 중간 규모의 회사로 순환기계용제, 항경련제, 이담제, 안과용제, 항생제 등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금은 제너릭도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기존 제품 제제개선연구, 개량 신약 개발 등 전문약 위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Q: 주력 상품

A: 순환계, 안과, 골다공증 분야 매출이 큼니다. 그 중에서도 정맥, 림프 기능 부전 개선제로 개발된 '엔테론정'이 대표적입니다.

Q: 보건의료산업학과 졸업생 취업 전망

A: 대부분의 제약회사에서는 기술이전, 보건의료R&D관리, 제품수출 등의 분야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산업학과 졸업생은 특히 저희 회사의 기술이전 라이선스팀이나 R&D 분야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선배들의 천기누설

취업 성공 꿀 팁(류화현, 차바이오텍)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보건의료산업학과 11학번 류화현입니다.

Q. 현 직장과 부서 그리고 하고 계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A. 차병원 그룹 내 차바이오텍이라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한 부서는 바이오인슈어런스 사업본부 마케팅팀입니다. 저희 본부가 하는 일은 보다 젊고 건강할 때 우리의 면역세포와 줄기세포를 보관(보관)하고 후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관해두었던 세포를 활용해 치료(요법)하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저는 마케팅팀의 사원으로 저희의 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보조적인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Q. 취업을 위해 학부 시절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A.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공모전, 과학생회, 이색 아르바이트, 인턴,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다중전공, 동아리 활동 등을 했습니다. 공모전은 3학년 때 '2016 아모레퍼시픽 Brand Challenge'에 참가하여 본선에 진출했던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모전들에 참가하여 수상했었는데, 이때 기획 업무의 재미를 느꼈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또한 과학생회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꾸준히 했었는데, 이를 통해 남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및 면접에 적극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Q. 학부시절에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방학을 유익하게 보내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4학년이 되어서 '학부시절에 더 많이 해봤더라면 좋았을 걸'하고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방학 동안 지금의 후배들처럼 해외여행을 더 많이 못 다녔던 것입니다. 국내여행도 좋지만 해외여행을 통해 외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자연을 즐기며 외국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어떤 모습이 다른지, 어떤 일들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지 등을 직접 깨달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야 이탈리아 여행을 했었는데 당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고, 조금 더 일찍 다녀왔더라면 대학생활과 취업준비에 대한 저의 생각과 의지가 더 일찍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도 방학 때 자신들이 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졸업 후 진로를 위해 후배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나요?

A. 졸업 후에도 졸업까지 노력했던 것 이상으로 더 열심히 20대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취업 후 초반에는 회사에 적응한다는 핑계로 자기개발을 게을리 했었습니다. 한번 게을러지니 쉽게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사라졌습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 학부시절 취득하지 못했던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취업을 위해서가 아닌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내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들을 준비하다 보니 더욱 즐겁게 공부하고 있고, 다시 열정적으로 20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꾸준한 자기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취업하는 것이 저의 삶의 최종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졸업했다고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보건의료산업학과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신입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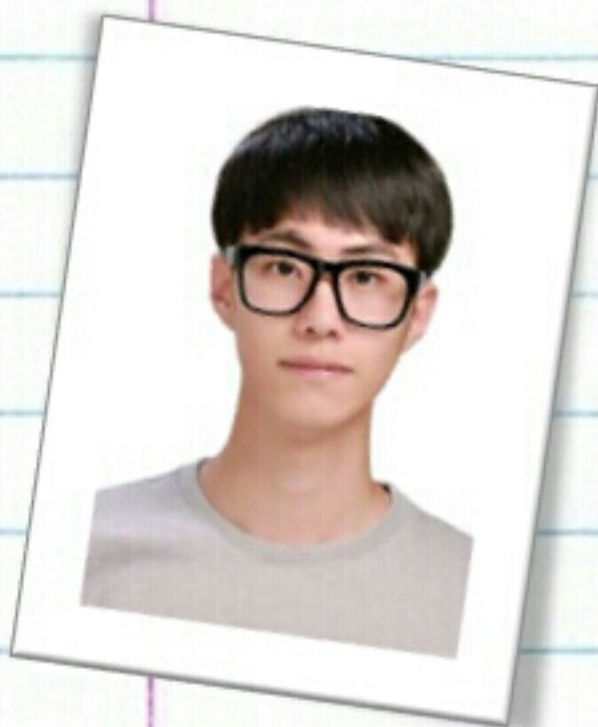
A. 신입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수님과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입니다. 제 대학 생활은 사실상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2011년 당시 헬스산업학과 1기로 입학하여 직속 선배도 없이 1학년을 마친 후 군복무를 하는 도중 학과 개편이 일어났고, 복학 후 학과 명이 "보건의료산업학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기까지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학과가 탄생하였고, 지금의 '이신호' 학과장님이 오시면서 저희 학과는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선배도 없었고, 1학년 마친 후 바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교수님과 상담할 기회도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 많은 선배들과 훌륭한 교수님이 있는 만큼 신입생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다가가서 궁금한 것들 물어도 보고 할 수 있길 바랍니다.

Q.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A. 주변 선배, 부모님, 교수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경험을 하세요.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에게 맞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모습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가세요.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바라왔던 자신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과정 속에 분명 실패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좌절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바라왔던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선배들의 천기누설

대학원 진학 성공 꿀 팀(권경우, 성균관대학교 석사과정)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안녕하세요. 보건의료산업학과 11학번 권경우입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에 재학 중이고 서울삼성병원에서 의료기기 사용자적합성에 대해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대학원 공부 중에 학부에서 배웠던 지식들이 잘 활용되고 있나요?

A. 네. 일단 과 자체가 의료기기산업학과이기도 하고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이 실제로 학부에서 들었던 수업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부수준에서 다루었던 전공들은 정말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이곳에 와서 새삼 또 느낍니다. 보건의료산업학과는 전국에 단 하나만 존재하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과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실제 관련 기업으로의 취업이나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정말 전문가답고 남들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Q. 보건의료산업에서 필요한 역량

A. 아무래도 저는 창의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과 인간이 다른 점은 바로 인간에게는 창의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를 현장에서 제대로 분석하고 창의적이게 가공할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앞으로의 보건의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창의성을 기반으로 자신을 발전시킨다면 훌륭한 역량이 될 것입니다.

Q. 학생 때를 생각해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A. 학생 때 저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학년과 2학년 때 많이 놀고 군대를 갔다 와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1,2학년 때는 정말 의미 없이 놀기만 한 거 같습니다. 그 때는 목표도 없고 단순히 시험공부 할 때만 바짝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많은 생각을 한 후에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학을 하고 나서부터는 전과 달리 의욕이 생겼었고 무엇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춤 동아리, 기타 동아리, 학생회, 기자단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 와중에 저는 목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목표는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하는 일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의료기기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줬고 동기를 부여해줬습니다. 또 항상 저를 응원 해주고 있었으며 저를 여기까지 끌어줬습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로 목표를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목표가 없었을 때에는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목표를 가지고 나서는 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넓은 세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가 단순히 포천에 있다고 포천에 포커싱을 하는 것이 아닌 서울, 경기 지방의 또래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신과 비교하면서 배울 점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배를 이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목표를 갖게 되면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를 위해 선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1학기 총 워크샵 때 다음날 수업이 있어도 신입생들을 보러 간 이유는 신입생들에게 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 의료기기 산업에 관심이 생기게 되면 나를 찾아와'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든 진로 등 고민이 생기면 선배를 찾아 조언을 듣고 같이 고민해보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일단 많이 놀았으면 합니다. 대신 자기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피시방 가서 게임을 하고 술을 먹는 것이 아닌 배우면서 놀 거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춤, 기타 동아리를 통해서 재미와 경험 둘 다 느꼈습니다.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좀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게 되었습니다.

즉,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깨닫고, 성적 이외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가치 있고 생산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들의 천기누설

취업 준비 꿀 팁(지태영, 4학년)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안녕하세요. 보건의료산업학과

B.4학년에 재학 중인 12학번 지태영입니다.

Q. 현재 관심이 있는 분야와 그 분야로 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 중에 있나요?

A. 보건의료산업 분야는 굉장히 포괄적인 분야다 보니 많은 분야로 진출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만큼 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학부과정에서는 그 배움에 깊이가 부족할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정하고 그 방향으로 일찍 나아가면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 의료기기 산업에 관심이 많아 3학년부터 관련 수업을 듣고 관련 스펙을 쌓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의료기기 산업’, ‘의학용어’, ‘보건의료산업육성정책’ 등의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또 ‘내가 의공학도가 아닌 보건의료산업학과를 진학해서 의료기기 산업에 이만큼 관심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3학년 방학부터 진행되는 인턴실습을 의료기기 기업체 및 의료기기 관련 공공기관으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의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학부 수준에서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약처 산하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의료기기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한 의료기기 RA 2급 자격 교육을 수강하였고 현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Q.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저 같은 경우 위에서 언급한 RA 직무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RA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한 인증 및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판매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writing 능력, 문서를 읽는 reading능력, 외국 바이어 또는 컨설턴트와 소통을 위한 listening · speaking 능력 등을 기르기 위해 TOEIC 고득점을 향해서 공부하고 있으며, TOEIC 점수를 충족시킨 후에는 OPIC 자격증을 취득 할 계획입니다. 또 어느 기업을 가던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한국사와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추기 위해 관련 지식들을 습득 중에 있습니다.

Q. 10년 뒤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A. 국내 식약처 인허가 및 글로벌 인허가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의료기기 RA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며 직장에서 품질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개발을 끊임없이 하여 국제 의료기기 인허가 전문가 자격인 RAC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욱 시간이 흘러서 정말 의료기기에 전문인이 되어 각종 컨퍼런스나 포럼 등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대중에게 보여드리며 연설을 하고 싶습니다.



Q. 신입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제 생각에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진로를 일찍 설정해서 해당 분야 취업을 사전에 준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학년 짬 되면 각 산업별로 희망하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들을 수강한 후에 본인이 재밌고 흥미가 느껴지는 분야로 진로를 설정하여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 경험상 전공을 많이 수강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것보다 전공을 수강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에 포괄적인 지식을 습득한다면 미래에 실무에서 활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 과 전공을 수강하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저의 경우에 데이터 경영학과의 마케팅, 회계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마케팅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었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서 통섭적인 시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1학년 때부터 공부에 대해 너무 조급해 하지 않고 동기들과 대학생할 즐기면서 학과 및 전공에 대한 탐색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학생들은 통학버스에서 통학하는 시간동안 가볍게 책을 읽으며 교양을 쌓고, 기숙사생들은 친구들과 놀다가 가끔 책을 읽으며 교양을 쌓고 사고하는 폭도 넓어지면 생각이 정리되기 때문에 미래에 과제나 자기소개서 등을 쓸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을 떠나자!



16학번 최성운입니다.

저는 군 입대를 앞둔 친구와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우정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께 제주도 여행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Day 1

첫 날은 부안에서 목포로 이동하여 새벽 6시에 제주도 행 배를 탔습니다.

도착 후 피곤함으로 모든 일정을 2일차 이후로 미뤘습니다.



Day 2



제주공항



이호테우 해수욕장

마녀식당

신화레저

왕따나무



게스트 하우스



아침에 렌트카를 빌려 이호테우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이곳은 드라마 도깨비를 촬영한 곳이라 저희도 도깨비처럼 기념 사진 찰칵^^



그 다음 왕따 나무를 보러 갔습니다. 넓은 들판에 나무가 하나 밖에 없어서 지어진 이름이라네요!

저녁 식사 하러 마녀식당이라는 맛 집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진짜 맛 집이에요! 양이 적다는 게 흠이지만.....



Day 3

3일차 첫 코스는 몬스터 살롱이라는 카페였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여기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봉사 주스와 츄러스, 수제 버거를 강추합니다^^



다음으로 올레 시장에 들려 제주도 풍물 구경을 하고 게스트하우스 뒹굴에서 저녁 파티를 했습니다. 모든 음식이 사장님 손수 만드신 거라 집 밥을 먹는 것 같았고 처음 본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어서 더욱 즐거웠습니다 ㅋㅋ



몬스터살롱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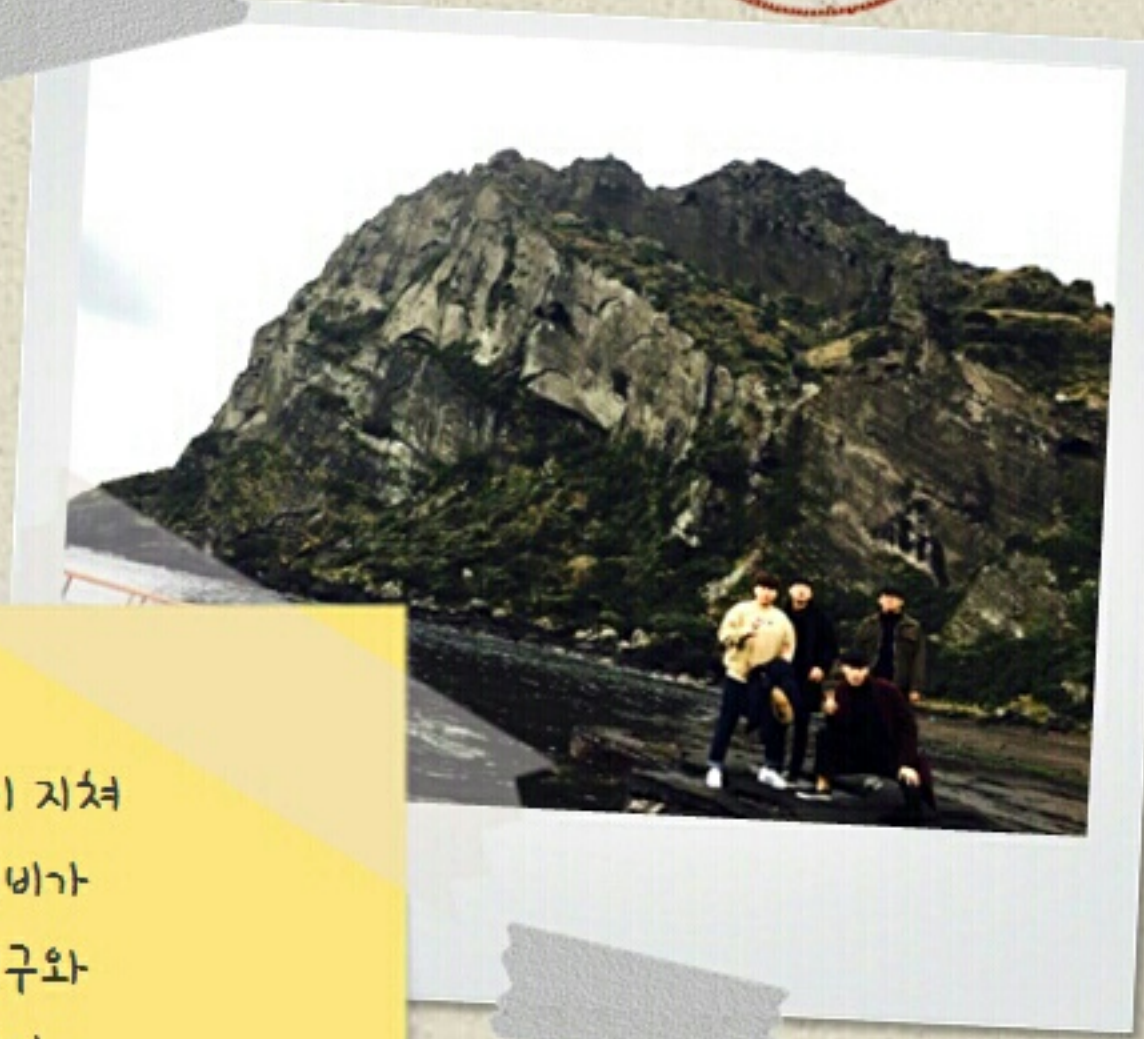
올레 시장



뒹굴 게스트 하우스



Day 4



마지막 날은 성산 일출봉에 갔습니다. 많이 지쳐서 끝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자연의 신비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제 곧 입대하는 친구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정말 기쁜 마음을 담아 무사히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가보세요용~!!!



Jeju

웃으면 행복해요^^

년센스 퀴즈

1. 예수님이 옷을 찢으면?
2. 해 뜨는 시간이 길어지면?
3. 해를 취재하는 기자는?
4. 지나가다 치고 간 사람에게 제일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5. 다블로와 강혜정이 힘을 합치면?
6. 전주비빔밥보다 맛있는 비빔밥은?
7. 매일 빵점만 받는 연예인은?
8. 돌잔치를 영어로?

틀린그림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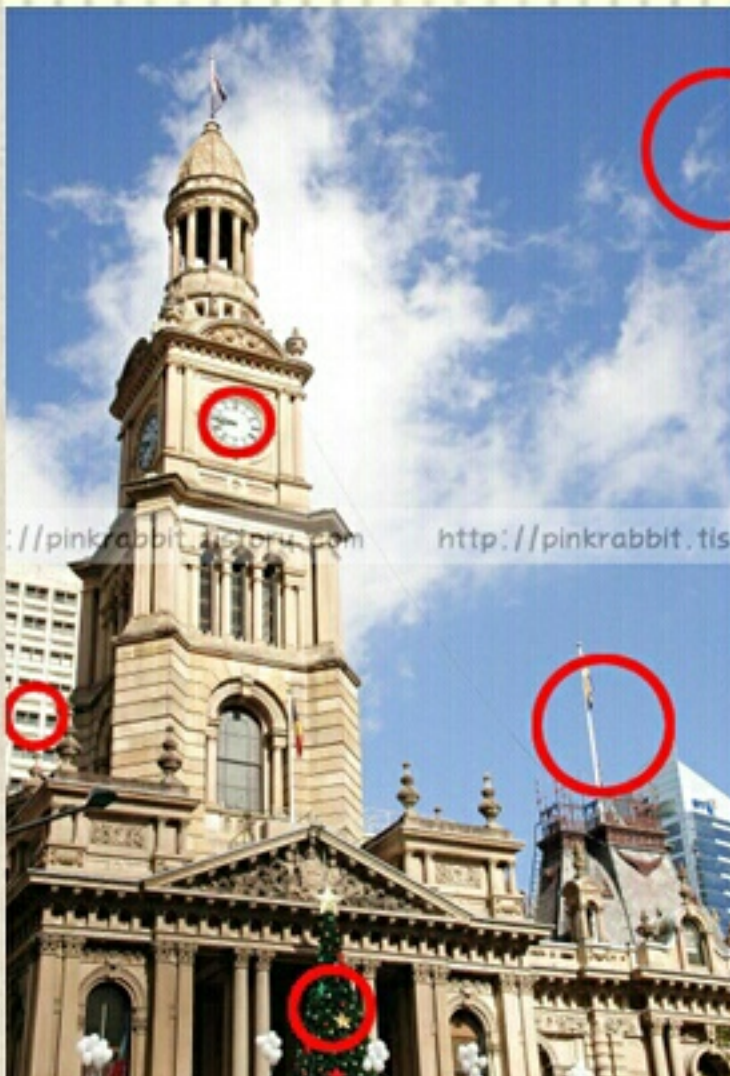
웃으면 행복해요^^

년센스퀴즈 정답

1. 찌저스(Jesus)
2. 해롱해롱
3. 해리포터
4. 친자확인
5. 힘이따블로강해정
6. 이번주비빔밥
7. 백지영
8. 락 페스티벌



틀린그림 찾기 정답





차 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뉴스레터 [창간호]

- 발행/편집장: 이신호
- 편집위원: 이신호, 김기성, 정미현, 박승민, 이평수, 한세미
- 작성: 보건의료산업학과 기자단
(김현정, 김태호, 김도희, 오성경, 이서현,
최성운, 권민혁, 김현진, 이영인, 조효선)
- 디자인: 김하린
- 발행일: 2017년 7월 3일
- 발행처: 차 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
전화: 031-850-8942 / 팩스: 031-543-9917
이메일: qwertyc@chamc.ac.kr
홈페이지: <http://healthcare.cha.ac.kr/>